청소년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비교 -

Emotional Intellig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f Adolescent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Normal Adolescents and Juvenile Delinquents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석 사 류 진 숙*
안동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 수 현 은 민
Major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 : Rhu, Jin-Sook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Andong Univ.
Professor : Hyun, Eun-M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motional intellig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f adolescents. The study also identified the difference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between normal adolescents and juvenile delinquent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447 adolescents included 249 normal adolescents and 198 juvenile delinquents.

The major findings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 emotional intelligence between normal adolescents and juvenile delinquent. Normal adolescents had higher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n stress coping styles except wishful thinking between normal adolescents and juvenile delinquent.

Second, there were overall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However regulation of emotion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stress coping styles. The result of Canonical Correlation revealed that emotional facilitation of thinking among five sub-domains of emotional intelligence was the best contributor to predict stress coping styles of adolescents.

▲주요어(Key Words) :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스트레스 대처방식(stress coping styles), 일반청소년(normal adolescents), 비행청소년(juvenile delinquents)

Ⅰ. 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서 여러 가지 변화들에 적응하는 능력이 크게 요구되는 시기이다. 청소년의 발달상황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부조화와 불균형이 다른 어떤 시기에서보다 쉽게 나타나는 스트레스 홍수기이며 문제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강영자·이재연, 1996). Brenner (1984)는 출생에서부터 사춘기에 이르는 동안 청소년들은

* 주 저 자 : 류진숙 (E-mail : alsdyddjasl@hanmail.net)

심각하게도 무수한 긴장 즉, 스트레스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고등학생의 90%가 특유의 스트레스로 인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적응곤란(가정문제, 대인관계 문제, 학교생활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약 30% 정도가 심리적 장애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뚜렷한 적응장애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김광일, 1993 재인용).

청소년들의 생리적,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혼동 그리고 사회적 역할의 변화와 가치체계의 변화 등은 그들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정서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의 부족과 조절능력의 한계는 그들의 개인적 성장 및 발달과 대인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행동, 심리적 적응 등에 영향을 준다. 특히 학교에서의 학업부진, 또래관계에서의 문제, 충동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사회 적응상의 문제 등이 정서 불안정과 관련되며, 청소년기의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Siegel & Brown, 1988, 강영자 · 이재연, 1996. 재인용). 그러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도 부족하다. 여러 연구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며 대처를 하더라도 방식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이도영,1990; Ebata & Moos, 1991).

특히 비행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 비행으로 대표되는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며 이러한 실패의 경험으로 우울, 좌절감, 낮은 자아존중감, 미래에 대한 무기대 및 무력감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을 낳게 된다(Petit, Dodge, & Brown, 1988).

최근에 와서 Goleman(1995), Mayer와 Salovey(1997)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상태를 잘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여 환경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인 정서지능을 스트레스 경험과 적응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개인적 변수로서의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후속 실험연구를 통해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능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Mayer와 Salovey(1990, 1997)는 정서와 지능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정서는 적응적이고 기능적이어서 인지활동과 후속행동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 높은 정서지능의 소유자는 적응을 잘하고 정서적으로 성숙되었으며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Goleman(1995)도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야하며 인간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적 갈등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정서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정서지능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특성으로 정서지능의 개발은 성인기보다는 인간의 발달단계 중에서 정서적 특성이 형성되기 전, 아직 변화 가능성이 많은 단계인 아동기와 늦어도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김창대, 1985). 장휘숙(1999)은 청소년기 동안 획득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감정을 이해하며 수용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발달과업을 생각해 볼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간의 정서에 기초를 둔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서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표현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하고, 스트레스도 어떤 객관적 자극 자체보다 자극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심리상태와 관련이 있다면 같은 스트레스 자극이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정서지능 차이에 따라 스트레스 자극 자체를 다른 관점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까지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Mayer, Dipaolo, & Salovey, 1990; Goleman, 1995; 문용린, 1996; 곽윤정, 1997; 유광선, 1999)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Brenner, 1984; Cox, 1991; Lazarus & Folkman, 1984; 김정희, 1987; 김창대, 1985; 원호택 · 김순화, 1985; 이경희, 1996)에 관한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각각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청소년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를 관련지어 고려한 연구는 지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은 그들이 처한 상이한 환경적 조건으로 인해 정서지능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서로 다른 스트레스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비교분석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여 정서지능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어떻게 다른지 밝히고 이를 통해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복지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청소년 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정서지능과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적, 환경적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비행청소년들에게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는 심층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은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2)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은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계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정서지능

정서지능(EI)은 Emotional Intelligence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정서지능, 감성지능, 또는 감정지능이라고도 한다. EI는 1990년 Mayer와 Salovey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서 자신의 감정(또는 기분)들을 구별하는 능력, 그리고 이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하는 능력으로 정의되었다.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EQ는 Emotional Quotient의 약자로서 지능 지수를 뜻하는 IQ에 상대되는 개념이며 정서 지능을 치수화한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말로 옮기면 감정지수 또는 정서지수가 될 것이다.

정서지능은 정서와 지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개념으로 정서가 일정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동에 힘을 부여하며 생존적 가치를 지닌 신호체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는 지능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Salovey, 1996). 정서지능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이 요소들 가운데는 감각, 지각, 기본적인 감정에 관해 낮은 과정들이 있는 반면(감정을 지각, 인식, 표현하기 등), 의식적이고 사려깊게 감정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높은 과정들이 있다(감성발달과 지적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감정을 조절하기).

Salovey와 Mayer(1997)는 정서지능의 모형을 정서의 인식과 표현,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지식의 활용, 정서의 반영적 조절의 4영역으로 구분하여 16가지 요소를 제시하였으며 정서지능이란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고 평가하며 표현하는 능력, 감정에 접근하고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서를 유발시킬 수 있는 능력, 정서 및 정서와 관련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정서적, 지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2. 스트레스 대처방식

1)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개념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자신이 가진 자원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위협적이고 부담이 된다고 생각되는 상황 즉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개인이 보이는 적응행동의 과정, 문제해결 노력, 또는 인지적 활동으로 정의되며(Pearlin & Schooler, 1978)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들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보이는 인지적·행동적 노력을 의미한다(Billings & Moos, 1984).

Lazarus(1981)는 스트레스 개념 그 자체는 대처에 비하여 유의성이 적다고 하였다. 즉 개인의 적응은 스트레스 경험 자체보다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더 많이 설명되며(민하영, 1999 재인용). 따라서 대처기제의 명확한 이해는 개인의 적응에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 대처 양식의 차원은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과 같이 스트레스 상황 자체를 변화시키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문제중심적 대처(problem-focused coping)와 스트레스 상황을 변화시키기 보다 그에 수반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거나 완화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정서중심적 대처(emotion-focused coping)로 나뉘어 진다.

Folkman 과 Lazarus(1980)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서중심적 대처를 기초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문제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 유발 상황을 만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과 환경 그 자체를 바꾸게 하려는 즉, 스트레스의 근원에 작용하려는 노력이다.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는 스트레스 사건이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처방식이다. 정서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와 관련되거나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감정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정서적 고통의 조정을 통해 삶과 환경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려는 노력이다. 그리고 소망적 사고 대처는 스트레스 유발 상황이나 사건과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하거나 상상함으로써 대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대처노력이 외부로 투여되는 문제중심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는 적극적 대처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 등 내부로 투여되는 정서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 대처는 소극적 대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박순영(1998)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되는 대로 내버려두거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등의 비현실적인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순희(1994)의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적응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스트레스원 중에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방

식을 사용하며, 대인관계 문제나 가정문제, 자신의 문제 등에서는 소망적 사고를 많이 사용하였다. 김정희(1987)는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자기 지각, 사회적지지 지각) 및 대응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의 연구에서 부정적 인지세트와 소극적 대처가 우울의 선행조건이 된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김창대(1985)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과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관한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문제지향적으로 대처했으며, 연령별, 성별에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하(2000)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을 연구한 결과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일반적 경향은 능동적 대처를 가장 높게 사용하고 수동적 대처를 가장 낮게 사용하였으며 특히 수동적 대처방식의 사용에 있어서는 1학년, 2학년, 3학년 순으로 학년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경희(1996)의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경우 주요 스트레스 사건인 학업성적문제, 부모와의 관계, 본인의 심리 및 성격문제, 학업성적문제, 이성친구와의 문제 등이 스트레스원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처방식을 살펴보면 적극적 대처방법으로 반성하기, 설득하기, 상담전화 이용하기, 문제해결, 교우요청 등이며 소극적 대처방법으로는 잠자기, 편지쓰기, 음악듣기, 혼자 생각하기 등으로 나타났다. 최해림(1986)은 한국대학생의 스트레스 현황과 인지-행동적 상담의 효과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높게 느끼는 학생일수록 문제지향적 대응책을 적게 사용하고 정서지향적인 대응책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4.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를 직접 다룬 연구가 거의 없어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1) 일반청소년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방식은 개인의 적응에 영향력 있는 대처자원이 되며 그러한 과정에서 인지적 평가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서인식 및 조절, 합리적 사고와 행동 등의 인지적 · 행동적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런 능력은 정서지능 하위영역에서 잘 반영이 되고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보면 그 핵심적 기제가 정서적 스트레스임이 반복되어 제기되고 있다(김선옥, 2004).

Lazarus(1999)는 정서와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정서들은 스트레스 정서로서 지칭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핵심은 부정적 정서를 중심으로 하는 정서적 스트레스로 개념화 할 수 있으므로(전겸구, 2000) 긍정적 정서상태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능력이 될 수 있다.

정서지능의 수준에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도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어 정서지능의 수준이 높으면 적극적 대처방식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공격적 대처방식은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희(2000)의 연구결과에서 정서지능이 높은 집단일수록 문제중심적, 사회지지적, 자기위로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미령(2002)은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정서지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으며, 특히 능동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밝혔다. 또한,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로 접어들수록 자기 스스로 정서를 조절해내는 능력이 스트레스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곽윤정(1997)은 정서지능의 발달경향성과 구인타당성에 관한 연구에서 일반청소년 집단이 비행청소년 집단보다 정서인식능력, 정서표현 능력 , 감정이입 능력, 정서조절능력, 정서활용 능력의 평균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특히 감정이입, 정서활용과 정서지능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김경숙(2003)은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통제감 및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들이 일상적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정서표현과 정서활용을 잘 할수록 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지능은 아동의 심리적 안정성 및 사회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아동들이 사회적 인지발달이 높게 나타나며 (Denham & Gorut, 1993), 이런 아동들은 주어진 환경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 왕정희(2001)의 연구에서 정서지능이 낮은 아동들이 사회적 능력과 대인문제에 관한 해결력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희와 최경순(2001)은 아동의 자아통제능력과 스트레스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정현희

(2002)는 아동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Rose(1991)도 자기통제력이 떨어지는 아동은 산만하고 학업성취도가 낮으며 대인관계에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사회적, 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였으므로, 정서지능과 자아통제능력,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비행청소년

Kazdin(1987)에 의하면 비행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과는 달리 부정적 경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인지의 특성으로 문제상황을 해결지향적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비행 및 정서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자신들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비행에 대하여 좌절하거나 위축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많이 형성되고 이는 다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비행청소년들은 다양한 위험요소들 즉, 가족 및 교우집단, 학교 등의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인지적 대처기제(Slaby & Guerra, 1988)를 매개로 하여 결국 행동상으로는 비행이라는 문제행동과 정서상으로는 우울과 낮은 자기만족 등의 부정적 상태로 현재 위치 지워졌다고 볼 수 있다.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 유발 원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해한 사회환경 속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상호작용을 통해 외부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내부의 욕구에 대처하는데 있어 정서조절능력이 부족하므로 대처능력 또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미령(2002)의 연구에서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행청소년들은 정서조절능력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낮고 정서활용능력도 부족하여 대인관계의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기술이 부족하므로 더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고 본다.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일반청소년들과 비교하여 갈등과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자신과 주변환경을 이해하는 힘이 약하며 이들의 행동이 상습화되는 경향이 있다(Lee, Chin, Cho, 1998).

우울, 불안과 걱정은 스트레스의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비행청소년 집단에서 이들 부정적 정서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Chiles, Miller, & Cox, 1980). 걱정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어 걱정이 높은 집단이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도피-회피의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최혜경, 1994) 걱정에 불안이 수반되는 경우에 문제중심적인 해결방안을 생각해내긴 하지만 이 해결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수용하기 어려워지고 따라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되어 불안과 걱정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Tallis, Eysenck, & Mathews., 1991; 강문희 · 정은의, 2003 재인용).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경북지방의 일반계 고등학생과 대구 · 서울에 소재한 소년원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2004년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4년 12월 27일부터 2005년 2월 17일까지 총 52일간 경북지역의 10개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협조를 구하여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총 500부 중 일반계 고등학교에 300부를 배부하였고 비행청소년의 경우 대구에 소재한 남자 소년원 및 서울에 소재한 여자 소년원의 협조를 구하여 총 200부를 배부하였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직접 배부하고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불성실하게 기재하였거나 신뢰할 수 없는 설문지는 제외하고 일반청소년 249부와, 비행청소년 198부를 합하여 총 447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 인	분 류	빈도(명)	백분율(%)
청소년집단	일반청소년	249	55.7
	비행청소년	198	44.3
	계	447	100.0
학 년	1학년	76	17.0
	2학년	154	34.5
	3학년	146	32.7
	기 타	71	15.9
	계	447	100.0
성 별	남학생	257	57.5
	여학생	190	42.5
	계	447	100.0
연 령	16 세	36	8.1
	17 세	71	15.9
	18 세	170	38.0
	19 세	170	38.0
	계	447	100.0
종 교	불 교	125	28.0
	기독교	142	31.8
	천주교	35	7.8
	유 교	3	.7
	무 교	137	30.6
	기 타	5	1.1
	계	447	100.0

<표 1>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계속>

변 인	분 류	빈도(명)	백분율(%)
가족형태	친부모	314	70.2
	양부모	11	2.5
	편 부	51	11.4
	편 모	24	5.4
	계부모	17	3.8
	소년소녀가장	3	.7
	친척동거	7	1.6
	시설보호	4	.9
	기 타	16	3.6
	계	447	100.0
가족서열	첫 째	165	36.9
	둘 째	130	29.1
	셋 째	23	5.1
	막 내	91	20.4
	혼 자	38	8.5
가족서열	계	447	100.0
주소득원	아버지 어머니 모두	206	46.1
	아버지 혼자	174	38.9
	어머니 혼자	31	6.9
	형 제	7	1.6
	기 타	29	6.5
	계	447	100.0
월 소 득	월 60만원 이하	30	6.6
	월 100만원 이하	53	11.9
	월 150만원 이하	64	14.3
	월 200만원 이하	79	17.7
	월 250만원 이하	75	16.8
	월 250만원 이상	146	32.7
	계	447	100.0
생활수준	상	9	2.0
	중 상	59	13.2
	중	270	60.4
	중 하	82	18.3
	하	27	6.0
	계	447	100.0

2. 측정도구

1) 정서지능

정서지능은 Mayer와 Salovey(1997)의 정서지능 최근 모형에 입각하여 문용린(1999)이 제작한 청소년용 정서지능 검사를 이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이입이라는 영역을 부각시켜 정서지능을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감정이입능력, 정서의 사고촉진능력, 정서지식의 활용능력, 정서조절 능력 등 다섯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서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로 구성되었으며 5개 하위영역 점수를 합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정서지능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로 산출하였으며 정서지능이 α =.78로 나타났고 하위척도인 정서인식 표현 α=.73, 감정이입 α=.67, 사고촉진 α=.73, 정서활용 α=.62, 그리고 정서조절 α=.60으로 나타났다.

3)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Folkman과 Lazarus(1985)척도를 토대로 김정희와 이장호(1985)가 개정한 대처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 문항들 중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최종 62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문제중심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정서완화적대처, 그리고 소망적 사고 대처의 네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문제중심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방식으로,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Likert식의 4점 척도로 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쓰인 다른 척도들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5점 척도로 바꾸어서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각 하위척도들의 신뢰도 계수는 문제중심 α=.77, 사회적 지지 α= .52, 정서완화 α= .74, 소망적 사고 α= .64였으며 적극적 대처 α= .80 그리고 소극적 대처 α= .8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에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를 알기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2)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와 정준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차이

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의 정서지능 차이

청소년 집단에 따라 정서지능에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청소년 집단에 따른 정서지능 차이

변 수	집 단	M	SD	t
정서인식표현	일반청소년	3.37	.50	1.47
	비행청소년	3.30	.57	
감정이입	일반청소년	3.54	.54	-2.53**
	비행청소년	3.67	.55	
사고촉진	일반청소년	3.71	.51	7.80***
	비행청소년	3.31	.58	
정서활용	일반청소년	3.64	.53	5.20***
	비행청소년	3.37	.57	
정서조절	일반청소년	3.96	.60	1.24
	비행청소년	3.89	.55	
정서지능	일반청소년	3.43	.29	3.49***
	비행청소년	3.32	.38	

** p<.01 *** p<.001

청소년 집단에 따른 t-검정 결과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집단 간에 정서지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3.49, p<.00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청소년의 정서지능 평균(M=3.43)이 비행청소년의 평균(M=3.32)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서지능의 5개 하위영역 별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감정이입(t=-2.53, p<.01), 사고촉진(t=7.80, p<.001), 정서활용(t=5.20,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고촉진과 정서활용은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났고 감정이입은 비행청소년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감정이입능력이 비행청소년보다 일반청소년이 높게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 비행청소년의 감정이입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성을 비교한 연구(염태호 · 김정규, 1991; 이창수, 1998)에서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지능은 낮으나 온정성, 자아강도, 지배성, 정열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창수(1998)의 온정성이 높은 청소년은 사교성이 있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남을 배려하며 관대하고 도움을 준다는 해석에 비추어 비행청소년의 감정이입 능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정서활용 능력은 사고, 추리, 문제해결, 창의적 과제수행 능력 및 적응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과 관련되는 것으로 학습 과제에서의 동기화나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정서활용 능력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정서상태를 최대한 이용하여 불쾌한 감정을 참고 유쾌한 감정은 유지하여 자신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거나 현재의 감정에서 주의를 전환시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므로(Mayer & Salovey, 1996) 어떤 종류의 문제해결에서 보다 더 적응적인 정신상태를 창출한다.

사고촉진 능력은 다양한 문제상황에서 상황에 맞게 정서상태를 바꿀 수 있거나 정서를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시켜 직면한 문제상황을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결과에 대해 고려할 수 있게 한다(Salovey,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에 비해 정서지능이 높아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의 성격에 따라 자신의 정서와 기분을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차이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청소년 집단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차이

변 수		집 단	M	SD	t
적극적 대처	문제중심 대처	일반청소년	3.33	.43	1.30
		비행청소년	3.27	.49	
	사회적 지지추구	일반청소년	3.97	.49	.73
		비행청소년	3.93	.53	
소극적 대처	정서 완화적 대처	일반청소년	3.09	44	1.18
		비행청소년	3.14	.40	
	소망적 사고	일반청소년	3.40	.53	2.74**
		비행청소년	3.26	.54	
적극적 대처		일반청소년	3.24	.40	.88
		비행청소년	3.20	.46	
소극적 대처		일반청소년	3.18	.40	.15
		비행청소년	3.18	.43	

** p<.0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에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소망적 사고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대처방식인 소망적 사고는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일반청

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점수가 높았다.(T=2.74, p<.01). 정서완화적 대처는 비행청소년의 평균값이 일반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 결과는 청소년들은 적극적 전략이나 소극적 전략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전략을 지배적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양가감정 또는 정체성 혼동으로 인하여 양 전략을 혼합해서 사용하거나 어떠한 전략에도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한상철, 2001)를 뒷받침한다. 강영자와 이재연(1996)의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안 비교연구에서도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이 적극적, 소극적(회피적) 대처방안 모두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일반청소년의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고순희(1994)의 일반계 고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며 대인관계 문제나 가정문제, 자신의 문제 등에서는 소망적 사고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일반청소년은 통제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보다 문제상황에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함을 보여준다.

2.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관계

1)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상관관계분석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각 요인별 상관관계 분석

구 분	스트레스 대처방식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적극적 대처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	소극적 대처
정서지능	.56***	.27***	.52***	.43***	.40***	.44***
정서인식 표현	.44***	.22***	.42***	.32***	.39***	.35***
감정이입	.24***	.14**	.24***	.20***	.15***	.20***
사고촉진	.57***	.24***	.54***	.40***	.45***	.47***
정서활용	.41***	.25***	.41***	.40***	.41***	.44***
정서조절	-.03	-.02	-.03	-.02	-.13**	-.12**

** p<.01 *** p<.001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상관관계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4). 우선 정서지능과 하위영역인 정서인식 표현, 감정이입, 사고촉진, 정서활용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에 모두 정적상관을 보였다.

정서지능은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문제중심대처와 가장 유의미한 관계(r= .56)로 나타났고 특히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인 사고촉진(r= .57)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정서지능은 적극적 대처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r=.52)를 보였고 사고촉진(r=.54)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추구와는 전체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여 청소년의 적극적 대처는 주로 문제중심적 대처를 의미하며 사회적 지지 추구는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청소년이 정서인식표현, 감정이입, 사고촉진, 정서활용을 잘 할수록 적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주로 문제중심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지능은 소극적 대처(r= .44)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고 소극적 대처에 속하는 정서완화적 대처(r=.43)와 소망적 사고(r=.40)와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중에는 사고촉진(r=.47)이 소극적 대처와 가장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 소극적 대처방식 모두를 사용하며 정서인식표현, 감정이입, 사고촉진, 정서활용능력을 발휘하고 상황에 맞게 정서상태를 바꾸거나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시켜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이 적극적 대처(문제집중적, 사회적지지 추구)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또한 소극적 대처(정서완화적, 소망적 사고)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선옥(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Aldwin과 Revenson (1987), Lazarus 와 Folkman(1984),에 의하면 상황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낮게 지각할 때 보다 정서중심적 대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최해연, 2000 재인용)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지능이 높은 집단이 문제집중적, 사회지지적 대처 뿐 아니라, 자기위로적, 소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부영희(2000)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소극적 대처방식은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스트레스 원인을 회피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하여 현재의 상황을 수용하거나 운명에 맡기는 등 인지적, 행동적 노력이 포함된다. 즉 통제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적극적 문제해결보다 문제상황을 회피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긍정적 적응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므로(김선옥, 2004) 대처자원이 부족한 청소년들로서 정서지능과 소극적 대처방식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서조절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각 하위영역과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아니었다. 이 결과는 정서지능의 각 영역이 위계와 수준이 있어 가장 상위단계인 정서조절 영역에서 청소년들의 발달이 가장 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정준상관관계

청소년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각 하위영역별 관계를 더욱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청소년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정준상관분석은 두개 이상의 독립변인과 두개 이상의 종속변인 사이의 상호관계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기법으로서 이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지능 하위요인들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요인들 중에서 보다 높은 상관성을 지니는 변인들의 집합을 알아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서지능 요인들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요인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두 변인간 관계가 최대가 되며 이때 가장 예측력이 우수한 정서지능 요인들과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요인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위해 정서지능과 하위요인들을 예측변수로 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요인들을 평가변수로 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정준상관 함수값들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 1정준상관에 한하였다.

전체청소년을 대상으로 제 1정준에서 가장 우수한 예측변수들과 비중있는 평가변수들을 교차상관계수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5> 전체청소년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 교차상관

예측 변수군	정준평가 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평가 변수군	정준예측 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정서인식표현	.39	문제중심	.57
감정이입	.25	사회지지	.25
사고촉진	.54	적극적 대처	.70
정서활용	.41	정서완화	.45
정서조절	-.04	소망적 사고	.46
		소극적 대처	.43

전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서지능 요인들 중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예측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사고촉진(.54)이었고, 그 다음이 정서활용(.41), 정서인식표현(.39), 감정이입(.25), 정서조절(-.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정서지능 요인 중 특히 사고촉진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음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요인들 중 정서지능 요인들과 가장 높은 상관을 지닌 것은 적극적 대처(.70) 이었고 그 다음이 문제중심 대처(.57)로 나타났으며 소망적 사고(.46)와 정서완화(.45) 순 이었다. 이는 전체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에서 정서지능 요인들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것이 적극적 대처이고 그 다음이 문제중심 대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조미령(2002)의 연구결과 정서지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낮으며 특히 정서지능이 높은 집단에서 능동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문제가 되는 행동이나 환경적인 조건을 변화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장경문(2003)의 개인의 자아탄력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 연구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비탄력적인 사람들보다 문제중심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 등의 적극적인 대처방식은 훨씬 많이 사용하고 소극적인 대처방식은 덜 사용한다는 결과는 개인의 자아탄력성이 적응적 성격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대처방식을 연구한 전성혜(1989)는 문제중심대처를 많이 할수록 우울이나 불안, 적대감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정서중심적 대처보다는 문제중심적 대처가 더 효율적인 대처방식이라고 주장하였고 Moos와 Billings(1982)는 문제중심대처방식은 정서중심대처방식보다 더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여러 가지 대처방식이 모두 나름대로 적응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처방식이 다른 대처방식보다 좋거나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비교적 최근 이론인 인지-현상학적 이론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지-현상학적 이론의 주장은 정서중심대처는 스트레스 극복에 일시적인 효과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자기기만 및 현실왜곡을 내포하는 반응이므로 상습적인 사용은 차후의 스트레스 극복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중심대처는 문제중심대처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정서중심대처가 문제중심대처를 방해하지 않을

때에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Lazarus & Folkman, 1984; Lazarus, 1981)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6> 일반청소년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 교차상관

예측변수군	정준평가 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평가변수군	정준예측 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정서인식표현	.39	문제중심	.60
감정이입	.23	사회지지	.23
사고촉진	.59	적극적 대처	.84
정서활용	.35	정서완화	.43
정서조절	.01	소망적 사고	.51
		소극적 대처	.54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준상관관계 분석결과 <표 6>에 의하면 정서지능 요인들 중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예측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사고촉진(.59)이었고, 그 다음이 정서인식표현(.39), 정서활용(.35), 감정이입(.23), 정서조절(.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요인들 중 정서지능 요인들과 가장 높은 상관을 지닌 것은 적극적 대처(.84)였고 문제중심 대처(.60)도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소극적 대처(.54)와 소망사고(.51)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에서 정서지능 요인들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어 지는 것이 적극적 대처이며 그 다음이 문제중심 대처이므로 일반청소년의 정서지능은 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일반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서를 이용하여 판단하고 사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감정이나 기분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7>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준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면 정서지능 요인들 중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예측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사고촉진(.55)이었고, 그 다음이 정서활용(.48), 정서인식표현(.42), 감정이입(.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정서지능 요인 중 특히 사고촉진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음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요인들 중 정서지능 요인들과 가장 높은 상관을 지닌 것은 소극적 대처(.83)와 하위요인인 정서완화대처(.69)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적극적 대처(.60)와 문제중심 대처(.55)여서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과 달리 주로 소극적이고 정서중심의 대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회피하거나 정서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고를 하는 것을 나타낸다.

<표 7> 비행청소년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 교차상관

예측 변수군	정준평가 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평가 변수군	정준예측 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정서인식표현	.42	문제중심	.55
감정이입	.30	사회지지	.32
사고촉진	.55	적극적 대처	.60
정서활용	.48	정서완화	.69
정서조절	-.08	소망적 사고	.40
		소극적 대처	.83

최해연(2000)의 연구에 의하면 상황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낮게 지각할 때 보다 정서중심적 대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Folkman & Lazarus, 1985; Carver & Scheier, 1994), 이런 저통제 상황에서의 정서중심적 대처의 효과에 대하여는 상이한 결과들이 보고 되고 있다. Aldwin 과 Revenson(1987), Lazarus와 Folkman(1984)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수준과 정서중심적 대처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각성이 야기될 때 정서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며 각성 혹은 긴장을 낮추기 위한 책략들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의 대처방식의 관계를 밝히는데 있으며 일반청소년들과 비행청소년들 간의 정서지능의 차이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비교분석하여 정서지능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어떻게 다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및 교육현장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 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에 정서지능의 차이 검증에서 정서지능과 감정이입, 사고촉진, 정서활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서지능과 하위영역인 사고촉진, 정서활용에서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감정이입에서는 비행청소년이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도 전반적으로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에 비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나 소망적 사고에서만 일반청소년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소극적 대처방식인 정서완화적 대처는 비행청소년의 평균값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둘째,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각 요인은 전체적으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정서조절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아니었다.

전체청소년, 일반청소년, 비행청소년 모두 정서지능 요인들 중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예측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사고촉진으로 나타났다. 일반청소년의 경우 정서지능 요인들과 가장 높은 상관을 지닌 것은 적극적 대처로 나타나서 정서지능은 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행청소년은 소극적 대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일반청소년과 달리 주로 소극적이고 정서완화중심의 대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지능은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높으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는 소망적 사고를 제외하고는 일반 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에 차이가 없게 나타나 스트레스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비행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여 적극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하며 정서중심적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일시적 효과는 있으나 현실을 왜곡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정서지능이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상관관계가 있고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모두 정서지능 하위요인 중 사고촉진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설명하는 가장 비중 있는 요인임을 나타낸다. 일반청소년은 사고촉진에 의해 적극적 대처와 문제중심적 대처를 하는 경향이며 비행청소년은 주로 소극적 대처와 정서완화적 대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지능이 높은 청소년이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서 적극적 대처와 문제중심적 대처를 주로 한다는 결과는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의 청소년들에게 정서가 개인적 자원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청소년은 적극적으로 비행청소년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정서를 활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서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적, 환경적 방안을 찾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에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상담 및 교육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서지능이 높은 집단일수록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높으므로 사회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비행청소년들에게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는 심층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접 수 일 : 2005년 11월 15일
□ 심 사 일 : 2005년 12월 14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2월 13일

【참 고 문 헌】

강문희 · 정은의(2003). 걱정수준에 다른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사고억제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439-460.

강영자 · 이재연(1996).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원과 대처방안에 관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 34(5),** 307-326.

고순희(1994).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및 적응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곽윤정(1997). **정서지능의 발달 경향성과 구인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숙(2003). **아동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통제감 및 대처행동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선옥(2004). **아동의 정서지능과 일상적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분석.**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희 · 이장호(1985).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 **행동과학연구, 7,** 127-138.

김창대(1985). **우울과 스트레스 대처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용린(1996). **한국 학생들의 정서 지능 측정 연구. 새로**

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Peter Salovey 교수 초청강연자료집. 서울삼성생명 사회정신 건강연구소/서울대 교육연구소.

_____(1998). EQ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서지능의 이해와 적용/정서 지능연구의 현재와 미래.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조강연.

문용린 · 곽윤정 · 이강주(1999), 강민수(2001). **정서지능 연구의 성과와 전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민하영(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용하(2000).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영희(2000).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감성지수가 또래애착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염태호 · 김정규(1991).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성격유형. **형사정책연구, 2(4),** 193-222.

왕정희(2001).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 해결력과의 관계.**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호택 · 김순화(1985). 대학생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일연구.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12,** 43-51

유광선(1999). **정서지능 향상교육 프로그램이 정서지능과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경희(1996).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도영(1990).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창수(1998).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 **아동교육, 7(1),** 202-217.

장휘숙(1999). **청년심리학**. 학지사.

전겸구(2000). 정서와 건강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175-199.

전성혜(1989).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 및 대처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장경문(2003).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10(4),** 143-161.

정영숙(1998). **지능과 다중지능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연구.** 상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현희(2002). 아동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7),** 25-39.

정현희 · 최경순(2001). 아동의 자아통제능력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9),** 175-188.

조미령(2002).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방식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해림(1986). **한국대학생의 스트레스 현황과 인지-행동적 상담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해연(2000). **정서중심적 대처의 재개념화: 기능적 유사성에 근거한 대처자원의 구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혜경(1994). 근심과 대처방식간의 관계. **성격과 개인차 연구, 3,** 91-102.

한순아(1996).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그 대처방식과의 관계.**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상철(2001).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청소년의 우울 및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7(1),** 1-21.

Aldwin, C. M. & Revenson, T. A.(1987). Does coping help a reexamin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coping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337-348.

Billings, A. G. & Moos, R. H.(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77-891.

Carver, C. & Scheier, M.(1994). Situational coping and coping dispositions in a stressful trans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1),* 184-195.

Chiles, J. A., Miller, M. L. & Cox, G. B.(1980). Depression in an adolescent delinquent population. *Archives General Psychiatry, 37,* 1179-1184.

Cox, T.(1991). *Stress*(9th Ed). London: Macmillan Education Ltd.

Denham, S. A. & Gorut., L.(1993). Socialization of emotion: Pathway to preschoolers emotional and social competence.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8,* 73-101.

Ebata A. T. & Moos, R. H.(1991). Coping and adjustment in depressed and health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3-54.

Folkman, S. & Lazarus, R.(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Folkman, S.(1984). Personal control and stress and coping processes: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39-852.

Folkman, S. & Lazarus, R.(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1),* 150-170.

Gardner, H.(1993). *Multiple Intelligence: The theory in practce.* New York: Basic Books.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Kazdin(1987). Treatment of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02(2),* 187-203.

Lazarus, R. S.(1981). The stress and coping paradigm. Models for Clinical Psychopathology.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Verag.

Lee, J .K., Chin, T. W. & Cho, J .Y.(1998). A study on the anxiety, depression, and coping strategy of delinquent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7(3),* 493-499.

Mayer, J. D., Dipaolo, M. T. & Salovey, P.(1990). Perceiving affective content in ambiguous visual: A compon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772-781.

Mayer, J. D. & Salovey, P.(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21.

Mayer, J. D. & Salovy, P.(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y & J. D. Mayer(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ne: Educational Implication. New York: Basic Books.

Moos, R. H. & Billings, A. G.(1982).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coping resources and processes.* In L. Goldberger & S. Breznitz(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New York: Free Press.

Pearline, L. & Schooler, C.(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Petit, G., Dodge, K. & Brown, M.(1988). Early famiy experiences,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1),* 107-120.

Rose(1990). Putting the group into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Social Work with Groups, 13,* 72.

Salovey, P.(1996). Emotional Intelligence : Another way to be smart. Paper presented at the Sejong Culture Center, Seoul, Korea, November.

Salovey, P.(1996).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

Salovey, P. & Mayer, J. D.(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and D. J. Sluyter(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pp. 3-34). New York: Basic Books.

Siegel, J. M. & Brown, J. D.(1988). A prospective study stressful circumstances, illness, symptoms and depressed mood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715-721.

Slaby, R. & Guerra, N.(1988). Cognitive mediators of aggression in adolescent offenders: 1. Assess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4(4),* 580-588.

Tallis, F., Eysenck, M. & Mathews, A.(1991). Elevated evidence requirements and wor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21-27.